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서기동 구례군수

곡성군 중앙부처 각종 사업 응모

지원금 328억·9개 賞 휩쓸어

“산수유 테마파크·최대 야생화 단지 조성”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지역,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지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기동 구례 군수는 올해를 미래 비전과 전략을 실천하는 기회의 한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며 “오랜 숙원사업인 지리산케이빙 카는 환경부와 환경관련단체들의 반대여론을 지속적으로 순화시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친환경 쌀 생산면적을 1천ha로 늘리고 작목도 밀과 콩, 감, 산수유 등 1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인재 육성 60억 투자

이밖에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들을 초청해 농·특산물 품평회를 열고 상품컨설팅을 통한 선진 판매기법을 농민들에게 전수하는 한편 영세 영농조직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농산물 소포장제 제작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서 군수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재육성기금 60억 원을 마련해 지역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그동안 준비해 온 비전과 전략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면 작지만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잘사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도 내놓을 수 없다. 지역 농

섬진강 벚꽃 길 명소로

이를 위해 ‘관광 구례’의 터전을 닦을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지리산 온천지구와 연계한 호수공원과 생태 숲, 산수유테마파크, 전국 최대 규모의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하고 피아골과 온천 순환도로, 문수 관광도로 개설사업 등 관광기반 시설이 확충된다.

서 군수는 “전국 아름다운 도로 100선에 뽑힌 ‘섬진강 벚꽃 길’과 함께 산수유 거리와 피아골 단풍도로를 대표적인 관광길로 만들어 누구나 한번쯤 차를 멈추고 걸어보고 싶어하는 명소로 바꾸어 나가겠다”

친환경 농업 육성

이와함께 민간투자사업인 산동 팔포장과 온천 리모델링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도 전개된다.

서 군수는 “지역문화와 예술을 진흥시키고 레저스포츠를 적극 육

성해 문화군민으로서 자부심을 높 이겠다”면서 “유성준 명창의 생가 복원과 국악인묘지 조성, 전국판소리대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도 내놓을 수 없다. 지역 농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곡성군이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에서 300억원이 넘는 상사업비(지원금)를 확보했다.

곡성군은 올 한해 22개 중앙단위 공모사업에서 총 328억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고 전국 경영행정혁신분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9개의 상을 휩쓸었다.

분야별로는 행정자치부 주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비로 22억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농림부의 거점면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비 56억

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비 1억원 ▲FTA대비 과수발전사업비 32억원을 확보했다. 교육분야에서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비 6억 5천만원과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5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도시생태숲 조성사업비 10억원을 비롯해 지역고용 인적자원개발사업비와 지역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지역특화 기술혁신선도기업 지원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곡성군은 또 전남도 주관 ‘2006농

정업무평가 투용자심사’에서 1위의 영예를 안았으며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 선정, 지역혁신 우수자치단체 선정, 전국경영행정혁신 장려상, 참살기 존(zone) 전국 콘테스트 은상 등을 수상했다.

조형래 군수는 “올해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성과주의 행정을 펼친 결과”라며 “내년에도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함평군 창포 상품화

일신케미칼과 투자 협약

함평군이 벼농사 대체작물로 육성해 온 창포의 상품화가 가능해 됐다.

함평군은 지난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함평지역 창포산업 발전방안 보고회’를 가진 뒤 ㈜일신케미칼과 창포 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MOU), 광주여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일신케미칼은 창포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에 오는 2012년까지 129억 원을 투자하고 함평군은 창포 원료제공과 인·허가 및 행정 지원에 최대한 협력한다.

또 광주여대 친환경인증사업단과 공동으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인증 농업인 사후관리에 나선다.

/함평=박진표기자 py4079@

금연 클리닉 회원 모집

강진군 보건소가 ‘2008 금연 클리닉 회원’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 금연클리닉 회원으로 등록하면 개인별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금연보조제 무료 지급 및 금연치 기술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강진군 금연클리닉은 지난해 말까지 1천512명이 등록해 35%인 529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강진군 보건소가 ‘2008 금연 클리닉 회원’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

금연클리닉 회원으로 등록하면 개인별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금연보조제 무료 지급 및 금연치 기술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강진군 금연클리닉은 지난해 말까지 1천512명이 등록해 35%인 529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나주시민들은 최근 차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보도를 접하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한편 및 자회사 분할 매각설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한전의 경우 3개 주력사업 가운데 발전 분야 제외한 배전과 송전 분야는 국가기간 시설로 민영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

인됐다. 만에 하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을 빚는다면 호남 차별로 비화돼 망국적인 지역 감정이 되살아 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 무조건 폄하하고 배척하기보다는 당리당락을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기를 새정부에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인수위가 정책 결정이나 발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전 나주 이전 흔들지 말라

주·전남 혁신도시 착공을 계기로 100년 만에 도약의 계기가 마련됐으며 축적된 위기로 들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획예산처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한국전력 등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보고한 것을 놓고 혁신도시 건설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나주시도 사업추진 부서인 건설과를 비롯해 한전 등에 직·간접으로 진의를 파악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최승렬

(사회2부 나주주재)

결론은 혁신도시 건설이 당초

보성군 ‘광주·전남 방문의 해’ 홍보

보성군이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 태평양 홀에서 광주광역시·전남도가 개최하는 ‘2008년 광주·전남 방문의 해 기념선포식 및 홍보 박람회’에 참가한다.

보성군은 이 기간 동안 보성 녹차 등 35종의 지역 농·특산물 홍보관을 운영하고 시식회도 개최한다. 또 다례시연과 보성다향제,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차밭 빛의 축제를 홍보하고 축제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 외지 방문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점등식을 한 보성 차밭 ‘빛의 축제장’에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으며, 특산물 정정혜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새얼굴

“공직자 역량 강화·지역발전 최선”

서중배 영암 부군수

“잘사는 영암건설에 앞장 서겠습니다.” 신임 서중배(57) 영암 부군수는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귀중한 소감을 밝혔다.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서 부군수는 목포시 기획관광국

장과 전남도 해양항만과장 등을 거쳤다. 가족으로는 감정숙씨와 사이에 1남 2녀가 있다. 영광이 고향으로 취미는 등산. /영암=박진표기자 lucky@



강진청자 ‘웰빙산업’으로

농림부 향토산업 지정 국비 18억 지원

강진 고려청자가 ‘웰빙산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강진군은 강진청자가 농림부 향토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점토 등을 이용한 웰빙형 도자 산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

18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이 사업은 지역 특색과 전통성을 갖고 있는 향토산업을 발굴·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강진군은 우선 영세한 민간 도자업체의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자립기반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봉황 용기마을의 길 좋은 점토를 이용한 용기 실용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제품에 밀린 전통 용기의 장점을 되살려 도시민에게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향아리 개발에도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

다. 군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모두 30억원을 투입, 제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고품토와 점토 가공공장 신축, 공동 전시관매장 리모델링 사업, 연구 장비 구축 등에 들어간다.

이 밖에 유약 및 색도 개발 지원과 도자 산업에 대한 마케팅과 홍보 등도 추진된다.

조상언 강진군 유통팀장은 “이번 도자산업 육성이 지역의 향토 자원 산업화 촉진과 함께 각종 연관 산업 파급효과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Advertisement for 'Samiyeul Chejilshik' (Same Day Delivery) by Sanghyun Logistics. It lists various services like same-day delivery, express delivery, and warehousing. Contact: (주)상현로지스, TEL. 1566-9194.

Advertisement for 'S' Line (당신의 'S' 라인) by Simeon. It promotes health and wellness services. Contact: 시몬스현대, TEL. 1062-2271-1760, 1062-510-7651, 1062-9910-5800, 1062-5627-1575.